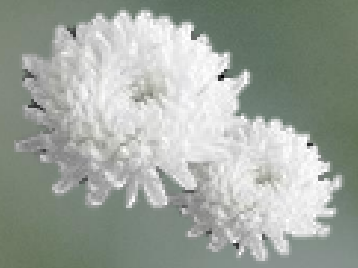




대한민국 스포츠의 근본적 변화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가고 싶습니다.
체육시민연대와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2022년 4월, 하늘에 별이 된 김포FC 유소년
축구 U-18팀 정우림 선수의 명복을 빕니다.
우리는 잊지 않겠습니다.

체육시민연대 뉴스레터

2024년도 제40호

함께 운동할까요? 배리어프리(무장애)스포츠

스포츠를 통한 소통, 데플림픽을 아시나요?

김최환 에이블뉴스 칼럼니스트

스포츠윤리센터, 100건 중 40건은 응답조차 하지 않아

선수 성폭행, 장학금 가로채도...체육계 '징계 요청' 왜 묵살되나

박준우 JTBC 기자

[강신욱 칼럼]

떡볶이 아줌마의 추억

신성대 파이낸셜뉴스 기자

문화체육관광부...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

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 대한체육회에 두번째 시정명령

조문규 중앙일보 기자

채용된 직원은 시체육회장이 추천한 인물

공개경쟁 없는 채용? 부산시체육회 별정직 임명 논란

윤일선 국민일보 기자

기사 모아보기

주간 스포츠 소식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효령로 230. 승정빌딩 407. I TEL 02-2279-8999

<https://www.sportscm.org/>

스포츠를 통한 소통, 데플림픽을 아시나요?

지난 8월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 모든 나라들이 열광하는 스포츠 축제로 파리올림픽과 함께 패럴림픽이 세계 주요 언론과 매스컴 관심 속에 성공적으로 대회를 마쳤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는 패럴림픽에 대한 언론보도나 사람들의 관심은 별로였다. 그나마 패럴림픽은 올림픽 개최지에서 올림픽 폐막 직후에 열리기 때문에 인지도가 비교적 높지만 데플림픽과 스페셜올림픽은 인지도가 처참한 상태이다.

데플림픽은 스페셜올림픽과 더불어 주요 언론의 무지와 무관심에 시달리고 있다. 사람들이 장애인 선수들은 전부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사실 한국만 그렇다고 보긴 어렵고 세계적으로도 패럴림픽만 아는 사람들이 적지 않을 것이다.

패럴림픽이나 스페셜올림픽은 언급이라도 해주고 경기 중계는 하이라이트 형식으로라도 보여 주기도 하지만 데플림픽은 언급이 거의 없다. 다만 정치권과 사회에서 청각 장애인들의 스포츠 인권 신장을 위한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으며 일부 언론도 반응하고 있다.

일단 메달리스트에 대한 연금 및 포상금은 올림픽, 패럴림픽과 동일하게 준다. 참고로 올림픽, 패럴림픽은 4, 5, 6위도 연금 점수가 조금 있는데, 데플림픽은 규모가 작다는 이유에서인지 1, 2, 3위의 점수는 두 대회와 차별하고 있지 않지만 4, 5, 6위의 연금 점수는 없다.

데플림픽은 IOC의 승인을 받은 국제 청각 장애인 스포츠 위원회에서 주최하는 청각 장애인이 참가하는 세계 스포츠 대회다.

청각장애를 뜻하는 deaf와 올림픽이 합쳐져서 만들어진 이름이며, '청각 장애인 올림픽' 또는 '농아(啞) 올림픽', '세계 농아 체육대회'라고도 부르지만, 2017년 삼순 하게 대회부터 '데플림픽'이라는 이름으로 쓰이고 있다. 사실은 장애인 올림픽으로 널리 알려진 패럴림픽보다 훨씬 빠른 1926년부터 시작된 국제대회이다.

올림픽의 상징인 오륜기와 패럴림픽의 상징인 아지토스처럼, 데플림픽의 상징은 OK 사인으로 이루어진 4개의 손이 모인 형태를 띠고 있다. 이 손들은 각각 빨강, 파랑, 노랑, 초록색으로 되어 있다.

CISS 공식 사이트와 한국 농아인 스포츠 연맹에 따르면 각각 범아메리카 청각장애 스포츠 기구, 아시아-태평양 청각장애 스포츠 연맹, 유럽 청각장애 스포츠 기구, 아프리카 청각장애 스포츠 연맹 등등 각 대륙마다 위치해 있는 스포츠 연맹을, 가운데 부분은 청각장애인들이 글자와 수어를 통해 소통할 수 있는 눈의 홍채를 의미한다.

데플림픽 경기에서는 출발 신호로 총소리나 호루라기를 사용할 수 없지만 깃발이나 빛을 쏘아서 경기 시작을 알리며, 관중들은 환호성과 파도타기를 통해 선수들을 응원한다.

1985년 로스엔젤레스 대회를 처음 참가한 것으로 시작하여 대한민국 선수단도 꾸준히 참가하고 있다. 2009 타이베이 데플림픽, 2013 소피아 데플림픽, 2017 터키 삼순 데플림픽에서 3연속으로 종합 3위를 기록하는 등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동계 대회는 2015 러시아 한티만시스크 대회부터 참가하였다. 2019 대회에서 첫 메달(동메달)이 나왔다. 2023 대회에서는 은메달 2개, 동메달 2개를 따내면서 역대 최고 성적을 기록했다.

다음 장 계속

대회 종목은 19종목으로 육상, 배드민턴, 농구, 볼링, 사이클로드, 산악자전거, 축구, 골프, 핸드볼, 유도, 가라데, 오리엔티어링, 사격, 수영, 탁구, 태권도, 테니스, 배구(배구/비치발리볼), 레슬링(자유형/그레코로만형) 등이 있다.

한국 농아인 스포츠 연맹에서는 2021년 강원도에서 2027년 동계 데플림픽 유치 도전을 선언했다가 돌연 취소하는 아픔이 있다.

그런데 2025 도쿄 데플림픽이 오는 11월 15일부터 26일까지 일본 도쿄에서 80개국, 6,000여 명이 참가하는 대회를 개최한다고 한다.

데플림픽에 대한 대한민국의 많은 언론의 관심과 청각 장애인 선수단에 대한 국민의 응원을 기대한다.

대한민국은 대한장애인체육회에서 지체 장애인을 위한 패럴림픽, 지적장애인을 위한 스페셜 올림픽, 청각 장애인을 위한 데플림픽 관련 종목으로 모두 관리한다. 전국 장애인체육대회에는 관련된 모든 종목이 함께 치러진다.

지난 9월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제18회 전북특별자치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순창공설운동장 및 종목별 경기장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대회에서는 게이트볼 종목에서 그동안 제외되었던 '청각장애 유형'팀이 참가하게 되어 경기함에 따라 필자가 매니저로 활동하는 청각장애인팀이 출전하여 공동 3위로 동메달을 목에 걸었는데 우리 팀원 중에 여자 농아인이 있는데 며칠 동안 자랑하며 다니기도 했다.

이번 장애인체육대회에 참가하면서 필자는 같은 언론인으로서 여타 언론의 보도와 관심을 기대하며 신문, 방송 등 뉴스와 기사를 살펴보았으나 앞서 개최되었던 비장애인 도민체전에 비해 보도가 너무 적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제는 수 많은 장애인 스포츠의 뉴스 보도를 통해 장애인 스포츠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이 이루어지고 독자들이나 시청자도 장애인 스포츠에 대해 흥미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 스포츠에도 함께 참여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리는 배리어프리 스포츠로 사회적 통합을 이루어 가면서 모든 사람과 함께 스포츠를 즐기게 하는 것이다.

-장애인 걸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선수 성폭행, 장학금 가로채도... 체육계 '징계 요청' 왜 묵살되나

[앵커]

정부가 체육계의 인권 침해와 비리를 막기 위해 4년 전 '스포츠 윤리센터'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선수를 학대하거나 성폭행한 지도자를 징계하라고 요구한 100건 중 40건은 응답조차 하지 않아서 제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박준우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8월 스포츠윤리센터는 고려대 럭비부 김모 코치에 대한 징계를 요청했습니다.

선수를 학대한 혐의 때문입니다.

[피해 선수 : 벌레 사체를 발견하시고 이거 너희가 청소했는데 왜 나오냐, 청소 똑바로 안 한 거니까 먹어.]

서울시력비협회는 6개월 출전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경기가 없는 비시즌인 10월부터 적용했습니다.

징계 기간 동안 지도자 자격도 그대로 유지됐습니다.

[피해 선수 : 자격 정지가 (선수들) 운동도 못 시키는 (건데)...출전 정지를 받아서 아무 의미 없는 징계가 내려진 거죠.]

그나마 징계를 한 건 나은 편입니다.

지난해 5월 한 대학교 태권도 지도자가 선수를 성폭행하고, 12월엔 다른 대학 축구부 감독이 선수 장학금을 가로챘지만 협회 측은 윤리센터의 징계요청에 아예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강경숙/국회 교육위원회 위원 : 스포츠윤리센터가 대학에 조사 협조를 요청해도 대학에서는 '우리는 교육부 소관이다'라고 하면서 협조하지 않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지난 5년간 윤리센터에 접수된 신고 가운데 100여 건에 대해 징계를 요청했지만 40여 건은 무응답이었습니다.

스포츠윤리센터 측은 징계 요청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강제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강신욱 칼럼] 떡볶이 아줌마의 추억

지금은 초등학교라 하지만 어릴 때 모든 국민학교 앞에는 떡볶이를 파는 분들이 있었다. 아저씨들도 더러 있었지만 아줌마들이 대부분이었다. 어린 마음에도 이들이 넉넉한 분들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다. 추운 날씨 언젠가 떡볶이를 먹던중 아줌마가 엄지발가락 쪽 구멍이 크게 난 검은 양말과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을 본 기억이 생생하다. 옷도 얇게 입고 있었지만 아줌마들은 늘 어린 우리들을 따뜻하게 맞아주고 보냈다. 파는 사람이나 사 먹는 사람이나 모두가 돈이 없던 시대라 지금에 비하면 재료가 엉성했지만 그래도 그 냄새와 맛은 평생 잊혀지지 않는다.

떡볶이를 편히 사 먹을수 있는 친구들은 좀 사는 집 애들이었다. 대부분은 버스 회수권이나 토큰을 떡볶이와 바꿔 먹었다. 그리고는 집까지 걸어 갔다. 물론 그렇게도 못사먹는 친구들이 수도룩했다. 아줌마 사장님은 지금처럼 개인 접시에 떡볶이를 준 것이 아니라 철판에 끓고 있는 떡볶이를 낸 돈 만큼 먹도록 내버려 두었다. 나와 친구 녀석들은 늘 몇 개를 더 먹었다. 그리고는 그런 걸 못 알아차리는 아줌마를 낄낄대고 비웃었다. 더 많이 속인 날은 더 즐거웠다. 난 학급의 반장이었다.

35세에 단국대학교 교수로 임용되었다. 교수 초기였으니 아마 40세 이전 같은데 잡지를 보다가 이전의 떡볶이 아줌마 관련 컬럼을 우연히 읽게 되었다. 저자는 아줌마들이 애들이 먹는 떡볶이의 갯수를 모르고 있던 게 아니고, 모두가 배고파 살 때인 만큼 자식 생각하면서 애들이 더 먹는 것을 늘 눈감아 주었다는 것이다. 조금은 모자란 듯 보이면서... 망치로 머리를 한 대 맞은 느낌이었다.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앓아 있었다. 그렇게 떡볶이 아줌마들은 지난 30년 이상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다.

체육계에도 떡볶이 아줌마 같은 사람들이 있다. 바로 체육 지도자들이다. 2024년 현재 5,413명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1,150명의 직장운동부 지도자, 2,800명의 지방체육회 지도자, 844명의 스포츠클럽 전임지도자 등 선수와 생활체육 인구를 지도하는 전임 지도자들이다. 물론 각 분야에서 파트 타임으로 일하는 지도자를 합치면 그 수는 엄청나다. 프로스포츠 종목의 재벌급 지도자들도 극히 일부 있지만 직장운동부 지도자는 2백~4백만원, 나머지 대다수는 한국사회 최저생계비인 2인 가구 221만원, 3인 가구 283만원에도 못미치는 2백만원 내외의 급료를 받고 있다.

1년 근무한 지도자나 10년 근무한 지도자나 급료 차이도 없다. 호봉제는 지난 20~30년 동안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다. 3년 무기직으로 일부는 변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1년 계약직이다. 비정규직에 처우 수준이 혼자 벌어가정을 꾸리기에 턱도 없다. 형편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이들은 바로 대한민국의 체육을 묵묵히 지키고 있다. 국민을 감동시키는 금메달을 일궈낸 사람들이다.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일은 체육계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인권적, 시대적, 사회적 과제다.

힘든 여건에서 체육지도자들은 미래의 올림픽 메달리스트를 키워내고, 유아부터 노인까지 지역주민의 건강을 지키고, 직업 선수를 지도한다. 음식과 약이 아닌 운동으로 한국사회를 건강하게 지키고 있다. 약자와 소외된 청소년들에게도 각별한 사랑을 베풀고 있다. 가끔씩 아주 이상한 일부 지도자들의 일탈이 보도되고 있지만 거의 대다수는 그야말로 선량하고 우직하게 현장을 지키고 있다. 현대판 떡볶이 아줌마 같이 고달픈 일상에도 불구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 그들은 또 그렇게 매일 운동장을 향한다. 체육지도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 강신욱 교수는 한국체육학회장,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집행위원장 출신으로 단국대 명예교수로 재직중이다.
자료 출처: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36292>

문체부, '불공정 개선 거부' 대한체육회에 두번째 시정명령

문화체육관광부가 대한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임기 연장 심의 관련 불공정성 개선 거부 건에 대해 10일 시정명령을 내렸다. 지난 8일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 절차 개선 거부 건에 대해 지난 8일 시정명령을 한 데 이은 조치다.

문체부는 지난 9월 3일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체육단체 임원의 징계관할권 상향 권고'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이 권고는 종목단체 및 지방체육단체 임원(회장 포함)이 비위 행위를 저질렀을 때, 해당 단체가 직접 징계를 심의하는 것이 불공정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됐다. 대한체육회와 대한장애인체육회가 이러한 징계 절차를 직접 관할해 체육단체의 '셀프 징계'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달 20일 대한장애인체육회는 문체부의 권고를 수용했으나, 대한체육회는 '신중 검토'로 회신하며 사실상 권고를 거부했다. 이에 문체부는 "회원단체의 독립성과 자율성 보장이 필요하며 각급 단체 정관 개정이 필요하다"는 대한체육회의 거부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문체부에 따르면 대한체육회가 회원단체의 관리단체 지정, 회장의 인준(승인) 등 광범위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면서도 임원의 징계관할권만 '회원단체의 자율성'을 내세워 존중하겠다는 것은 모순이라 했다.

그러면서 지난 7월 대한체육회 사례를 들었다. 문체부는 "채무가 많다는 것을 주된 이유로 대한테니스협회를 관리단체로 지정해 협회 임원을 모두 해임했다"며 "현재까지도 대한체육회가 대한테니스협회를 직접 관리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했다. 이어 "각급 단체의 정관보다 대한체육회 규정이 상위 규정(회원종목단체 규정 및 회원 시·도체육회 규정)이라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관련 규정만 바꾸면 곧바로 적용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고 했다.

또 스포츠윤리센터가 징계를 요구한 대한체육회 회원단체 임원의 비위행위에 대해 해당 단체가 징계사유별 최소 양정기준(징계 수준)보다 낮게 징계한 경우가 있었으나, 대한체육회는 이러한 절차를 가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장이 임기 연장을 신청하면 자기가 임명한 위원에게 심의받아 불공정한 일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체육회에 체육단체 임원의 연임 허용을 심의하는 스포츠공정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을 개선하라고 권고했다. 하지만 대한체육회는 불공정을 개선하지 않겠다는 수용 거부 의사를 지난달 25일 밝혔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공공기관으로서 체육계의 공정과 상식을 유지해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공정 개선 의사가 없는 상황을 심각하게 보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대한체육회에 18일까지 불공정 개선 이행계획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문체부는 대한체육회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주무 부처의 감독 권한을 따를 의무가 있는 공공기관이 법률을 위반하는 것인 만큼 스포츠 공정성을 높이고, 체육계 인권을 보호해야 하는 대한체육회가 불공정 상태를 방치할 뿐만 아니라 조장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후속 조치를 검토할 계획이다.

공개경쟁 없는 채용? 부산시체육회 별정직 임명 논란

부산시체육회가 직원 채용 과정에서 공개채용 원칙을 무시하고 특별채용을 진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채용된 직원은 시체육회장이 추천한 인물로 밝혀졌다.

부산시 감사위원회는 지난해 체육회 채용 실태에 대한 감사 결과 회장이 추천한 특정인이 별정직으로 채용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14일 밝혔다. 체육회는 이 과정에서 공개채용 대신 특별채용을 진행했고, 별정직 자리를 신설하기 위해 이사회의 관련 규정을 개정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위에 따르면 체육회는 해당 인물을 임명하기 위해 인사 규정 개정과 특별채용 절차를 동시에 추진했다. 회장이 추천한 특정인은 이사회의 동의를 거쳐 별정직으로 임명됐고, 동시에 인사 규정 개정과 인건비 확보, 사무처 운영 규정에 관한 서면 심의가 처리됐다. 이사회는 특정인 임명 동의안과 별정직 관련 규정을 함께 승인했다.

감사위는 이러한 절차가 특정인을 위한 채용이었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체육회 측은 별정직 특별채용이 자체 인사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지방 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정을 준용해 절차를 생략할 수 있었다고 해명했다. 또 규정 개정과 채용 절차가 동시에 진행된 것은 특정인을 임명하기 위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감사위는 체육회의 해명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감사위는 해당 규정이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지방의회의장 비서관 등 특정 직책에만 적용되며, 이번 사례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특히 정관과 인사 규정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특정인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이사회 서면 안건으로 상정한 것은 공개경쟁 채용 원칙을 위반한 사례라고 지적했다.

감사위는 체육회에 별정직 채용 절차를 공개경쟁 또는 제한경쟁 방식으로 전환하고, 직무에 맞는 자격 요건을 사전에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주간 스포츠 소식

경기도장애인생활체육대회 성남서 개막...23개 종목 5천명 참가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01/0014976743>

北 체육상 방러, 내달 평양 역도경기 준비...스포츠도 '밀착'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43363?sid=100>

경기도, 체육인 기회소득 등 다양한 체육정책 추진

<https://www.ekn.kr/web/view.php?key=20241015024505017>

총리실, 대한체육회 비위 첩보 조사 착수(종합)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4972338?sid=100>

정부세종청사 체육관, 국내 최초 시로 안전관리

<https://www.dtnews24.com/news/articleView.html?idxno=779915>

전국 '탈북 청소년' 한자리에...제1회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https://n.news.naver.com/article/421/0007841776?sid=100>

체육공단, 국민체력100 전국 체력왕 선발대회 개최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396/0000691534>

'막말 파문' 오광환 용인시체육회장 '자격정지' 나올까

<https://n.news.naver.com/article/031/0000875161?sid=004>

'2024 파리올림픽' 감동 재현한다...전국체전 11일 개막

<https://m.sports.naver.com/general/article/003/0012829858>

체육시민연대 온라인 정기 후원 안내

‘귀하를 체육시민연대 회원으로 모십니다’

체육시민연대는 우리사회 변화를 위해 실천합니다.

스포츠 인권과 평화,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문화를 함께 만들어 갑니다.

***후원:국민은행 086601-04-095940, 체육시민연대**

체육시민연대는 기부금대상 비영리민간단체로

시민들의 후원에 의해 운영됩니다.

(연말 기부금영수증발급)

온라인 정기 후원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